

# ‘스타필드 부천’에 들어선 트레이더스, 90만 상권 잡는다

레트로 기획전·신상품 로드쇼 등 전 세대 아우르는 콘텐츠 마련 샤넬 등 명품 브랜드도 첫 입점 스타필드와 집객 시너지 기대



트레이더스 부천점

/이마트

압도적인 크기의 ‘태권V’, 없어서 못 파는 ‘65형 UHD TV’, 명품패딩. 가성비 상품부터 프리미엄 브랜드, 이색 볼거리까지 한 자리에 모은 트레이더스가 새롭게 문을 연다.

이마트는 5일 트레이더스가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에 위치한 ‘스타필드 시티 부천’에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트레이더스 오픈은 지난 3월 월계점 개점 이후 6개월 만이다. 트레이더스는 스타필드 시티 부천 지하 1~2층에 총 1만 115㎡(3060평) 규모로 자리를 잡는다. 스타필드 시티 부천의 핵심 ‘키테넌트’로서 ‘트레이더스 부천점’은 스타필드 시티 부천의 집객에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특히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위치한 옥길동이 부천시·시흥시·광명시·서

울 구로구 등 4개 행정구역과 인접한 경계적인 만큼 트레이더스는 이 4개 지역을 비롯해 서울시 금천구 상권과 인천시 남동구 상권까지도 아우르는 총 90만명의 광역상권을 배후로 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이에 트레이더스는 부천점 오픈을 기념해 삼성카드와 단독 제휴를 맺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 15일까지 ‘미국산 냉동 LA갈비(2.3kg/6만7800원)’, ‘다우니 에이

프릴후레쉬(3.83L/9,980원)’ 등을 삼성카드 결제하면 5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일까지 트레이더스 부천점에서 삼성카드 1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크래치 경품 응모권을 증정하고 매일 30명씩 추천해 한우갈비세트(일일 10명), 에어프라이어(일일 20명) 등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번 트레이더스 부천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집객 요소는 ‘로봇 태권V

로드쇼’다. 엄마·아빠에겐 어린 시절의 향수를, 아이에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레트로 테마 기획전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신상품 로드쇼도 볼거리다. ‘세로’로 보는 삼성전자의 라이프스타일 TV인 ‘더 세로(The Ser)’와 비스포크 냉장고 등도 전시한다.

트레이더스 부천점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신규 도입해 선보인다.

먼저 코코샤넬(화장품), 키엘스(화장품), 프리메라(화장품) 등 화장품은 비롯해 톨루레몬(요가복), PT01(팬츠), 몽클레어(패딩), LAP(여성리유) 등 패션상품과 닌자(블렌더), 폴스킨(다이아리), 템퍼(베개), GUM(치약) 등 생활용품, 샤넬백과 광주요도자기 등 명품 브랜드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한편 이마트의 주 성장축인 트레이더스는 연회비가 없는 ‘열린 창고형 할인점’과 신선식품 장보기물, 로드쇼를 통한 볼거리 제공 등의 강점을 토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트레이더스의 전년 동기 대비 총매출액 신장율은 2017년 27.2%, 2018년 25.5%, 2019년 상반기 21.7%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유통 단신



### SPC삼립 카페스노우

#### 아이스디저트 ‘찰떡쿵떡’

SPC삼립의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가 아이스디저트 ‘찰떡쿵떡’(사진) 2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카페스노우 찰떡쿵떡’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떡의 쫄쫄한 식감이 어우러진 제품으로 ‘흑당’과 ‘초코’ 두 종류다. 두 제품 모두 아이스크림을 쫄쫄한 찰떡을 감싸 씹는 식감을 더했다. 전국 GS25편의점에서 판매하며, 권장소비자가격은 1500원이다. /박인용 기자



### 도미노피자

#### 취향따라 기분따라 신제품 ‘취향존중’

도미노피자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도미노피자 명동점에서 가을 신제품 ‘취향존중 시리즈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제품은 가성비와 맛을 앞세워 미디움 사이즈 1판 가격이 2만1000원, 2판 가격이 2만9900원, 3판 가격이 4만1900원이다. /손진영 기자 son@

### 디아지오코리아

#### 위스키 추석선물세트28종

디아지오코리아가 추석을 맞아 위스키 추석 선물세트를 전 국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전 세계 최고의 위스키 ‘조니워커’ 17종, 대한민국 1등 로컬 위스키 ‘원저’ 3종, 프리미엄 연산 저도주 ‘W 시그니처’ 3종 등 총 2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만5000원대부터 31만원대까지 가격 선택권이 다양하다.

조니워커 추석 선물세트에는 ‘조니워커 블루 500ml 패키지’(사진)와 ‘조니워커 XR 21년 순망치한 한정판 에디션’ 등을 포함한다. ‘조니워커 블루 500ml 패키지’는 꽃봉오리 모양의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위스키의 향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글라스인 ‘글렌캐런 글라스’를 증정품으로 제공한다. /박인용 기자

# 홈플러스 스페셜, 시즌2 개막... 코스트코와 ‘정면승부’

화성동탄·서울 남현·해운대점 리뉴얼 오픈... 코스트코와 치적 자체개발로 상품 중복 최소화



홈플러스 스페셜 화성동탄점 내부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22번째 생일을 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창립기념일인 9월 4일에 맞춰 홈플러스 스페셜 3개 매장을 연달아 리뉴얼 오픈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화성 동탄점을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으로 전환했다. 이어 4일 서울 남현점, 5일 부산 해운대점을 스페셜 매장으로 바꾸는 등 지난 해 시작한 스페셜 매장 전환의 시즌2 개막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특히 이번 3개 점포는 모두 경쟁 창고형할인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점포를 선정하며 정면 승부를 선포했다. 먼저 화성 동탄점은 코스트코 공세점과 직선거리로 약 5km 거리에 놓여 있으며, 서울 남현점은 강남권 유일한 창고형할인점이자 코스트코 글로벌 1위 점포로 알려진 코스트코 양재점과 약 4km 떨어져 있다. 부산 해운대점 역시 코스트코 부산점과 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홈플러스는 이 3개 점포를 통해 경기 남부 신도시 상권, 서울 강남권 상권과 부산 중심지 상권 등 창고형할인점 경쟁 지역에서 기존 창고형할인점의 대표적 단점을 보완한 운영 시스템과 홈플러스 스페셜만의 강점으로 성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홈플러스는 이번 3개 점포 전환을 통해 국내 최대 창고형할인점 보유 기업으로 떠올랐다. 16호점까지는 대형마트와 창고형할인점을 합친 신

개념 유통 채널을 만들고 시장에 정착시키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 선보이는 홈플러스 스페셜은 지난 1년간 운영하면서 겪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개념 유통 채널의 전성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스페셜 시즌2 매장에 새로운 변화도 왔다. 먼저 기존 2400여 종의 홈플러스 스페셜 전용 상품 종류(SKU)를 1800여 종으로 줄이며 판매량이 낮은 상품들을 과감히 떨어뜨렸다. 또한 단독 상품, 대용량 가

장간편식(HMR) 등 홈플러스 스페셜만의 차별화 상품을 개발·운영해 기존 대형마트(하이퍼)와의 상품 중복을 최소화했으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대용량 혹은 멀티기획팩 상품을 개발했다.

지난해부터 선보인 ‘홈플러스 스페셜’은 슈퍼마켓에서부터 창고형할인점까지 각 업태의 핵심 상품을 한 번에 고를 수 있는 신개념 유통채널이다. 꼭 필요한 만큼 조금씩 사는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박스 단위의 가성비 높은 대용량 상품을 선호하는 자영업자 고객까지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현대 소비자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트렌드를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이번 화성 동탄점, 더욱 정교하게 개선한 ‘신개념 유통 채널’ 홈플러스 스페셜의 시즌2를 열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어려운 유통 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쇼핑 환경을 구현하며 홈플러스 스페셜만의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하이트진로

#### ‘제라르 베르트랑 꼬뜨로즈’ 출시

하이트진로가 ‘제라르 베르트랑 꼬뜨로즈’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꼬뜨로즈는 여타 와인과는 달리 코르크 마개가 아닌 유리 마개를 사용했으며 375ml 투명한 병에 금박으로 장미를 그려 넣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KT&G, 신입·경력 190여 명 채용

KT&G가 ‘2019년도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KT&G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신입사원은 오는 9월 24일, 경력사원은 9월 16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190여명으

로 80여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 대졸 신입사원 모집 분야는 ▲재무 ▲영업·마케팅 ▲제조 ▲원료 ▲SCM ▲R&D ▲인사 ▲IT ▲부동산 ▲글로벌 등 모두 10개로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경력사원은 ▲재무 ▲마케팅 ▲법무 ▲제조 ▲원료 ▲글로벌 ▲경영관리 등 7개 분야에서 모집한다.

KT&G는 특히 시장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왔다. 고졸 채용은 전국마이스터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